중소벤처기업부 | 보도자료 |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(지 면) 4. 25.(화) 조간
(인터넷) 4. 24.(월) 12:00

중소기업의 선제적 위기대응,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은행이 이끈다

- 지방중소벤처기업청-한국은행 지역본부 간 업무협약 체결
- 위기징후지역 중소기업에 한국은행 지방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 자금 공급

중소벤처기업부(장관 이영)와 한국은행은 위기징후지역* 내 중소기업의 선제적 위기예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한국은행 지역본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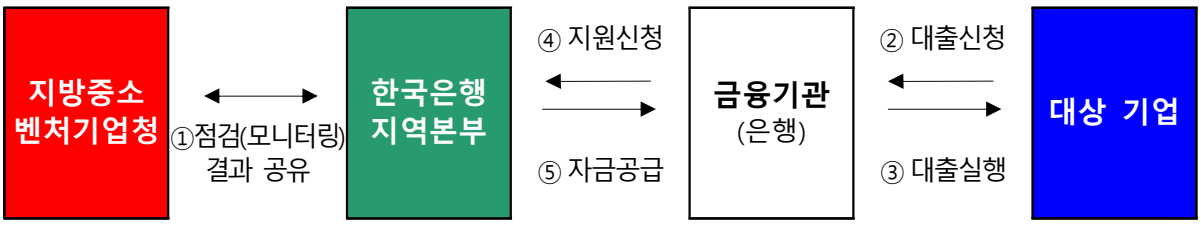
* 산업단지, 지식산업센터,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기업수, 종사자수, 매출액 등 주요지표가 악화된 지역

정부는 지난 6일 「지역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 방안」을 통해 지역중소기업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. 2022년 5개 지역, 2023년 12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위기지원센터*를 2027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고, 위기징후 기업에게 금융·판로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등 지역 위기관리체계를 강화한다는 내용이다.

*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경기동향 및 기업활동 현황 등을 분석하고, 지역별 위기예방계획 수립 지원과 위기 징후가 보이는 기업에 대한 긴급지원 등을 수행

이번 협약은 동 방안 후속조치로,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위기지원센터의 점검(모니터링) 결과를 토대로 위기징후지역을 결정하고, 한국은행 지역본부는 해당 지역 소재 중소기업에게 낮은 금리의 자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지원하여 지역 위기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함이며, 이를 통해 대상기업은 금융기관에서 조금 더 쉽게 자금을 조달하고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< 위기징후 기업 중소기업 자금지원 흐름도 >



이를 통해 대상기업은 금융기관에서 조금 더 쉽게 자금을 조달하고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업무협약은 4월 24일 대구·경북지역을 시작으로 강원, 부산, 전남 등 12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업무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.

* 업무협약식 : (일시) 4.24일 14시, (장소) 대구·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
(참석자) 대구·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,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장

이영 장관은 “지역중소기업이 마주할 수 있는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중소벤처기업부 기업구조개선과	책임자	과 장	임상규 (044-204-7480)
		담당자	사무관	정미리 (044-204-7481)
			주무관	장미리 (044-204-7586)
	대구 · 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	책임자	과 장	강호정 (053-659-2203)
		담당자	팀 장	장병석 (053-659-2204)
			주무관	이한규 (053-659-2266)
	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업무팀	책임자	팀 장	조태진 (053-429-0331)
		담당자	과 장	김동훈 (053-429-0333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참고 한국은행 지방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(C2) 개요

□ **운용목적** : 지역경제 균형발전 및 지방중소기업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한국은행 지역본부에서 은행이 취급한 중소기업 대출실적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

□ **지원규모** : 총 5.9조(전국 기준이며, 지역별 배분 금액 상이)

□ **지원부문**

① 전략지원부문 :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, 지역특화산업 영위기업 등

② 특별지원부문 : 지역에 소재하는 경기부진업종 영위기업

③ 일반지원부문 : 창업, 벤처, 혁신, 녹색기업 및 소재·부품 생산기업 등

□ **지원방식** : 금융기관 대출액의 일정비율(최대 50% 이내)

□ **기업당 지원한도** : (전략) 20억원, (특별·일반) 10억원

□ **지원금리**(2023년 4월 현재)

○ 중소기업 대출금리 : 거래은행과 협의(일반대출에 비해 금리감면 효과)

○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금리 : 연 2.0%

□ **지원절차**

한국은행 중소기업 지원자금 지원 흐름

